

자율개선대학 선정된 백석대학교

“해외 취업,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세요”



백석대학교 전경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가 '2018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백석대는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에서 자유롭고 국가의 재정지원 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백석대는 이에 앞서 2014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 2개 사업단이 선정 됐다.

이 가운데 '창조지식 기반의 실천형 관광 인재양성을 위한 Tourism+ Edu-station 구축 사업단'은 '관광 리쿠르팅 엑스포'를 통해 관광 관련 기업들을 학교로 초청, 취업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면접을 진행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창의적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총남 장애인체육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단'은 장애 유아·청소년 대상 공동체 기반 체육 프로그램, 장애 성인 부문 체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과 교육연수, 스포츠 여가, 재활복지, 시설·장비 등 4개 분야 관련 산업체별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부문' 사업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중 학부교육 선진화와 글로벌 협력시스템 강화가 강점이며 5년간 약 50 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LINC+사업단은 기업-대학 밀착형 교육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학생-산업 체 매칭, 산학일체형 교육, 교육품질 고도화,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통한 IDT(Information, Design, Tourism) 유망 서비스 분야 협약기업 맞춤형 취업을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능형응용SW 인재양 성(정보통신학부), 모션그래픽스 인재양성(디자인영상학부), 글로벌호텔 리어 인재양성(관광학부)을 추진 중이다.

취·창업 인프라, 지역 청년 고용협의체 구축을 비롯해 진로 지도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연 5억원씩 5 년간 총 2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PIC관리조트에서 백석대학교의 세 번째 '찾아가는 졸업식' 이 열렸다.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21명을 위해 장택현 대학혁신위 원장, 정정미 학사부총장과 전공 교수들이 꿈에 찾아가 졸업식을 개최했다. 켄 마이크로네시아 미쯔오 사토 사장은 "우리 그룹은 꿈에서 총 5개 호텔 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석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 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백석대 정정미 학사부총장은 "꿈을 찾아 꿈에 온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 며 "대학에서 배운 실무능력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세계 속에서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 홍승우(26·호텔경영학 전공) 씨는 "타지에 나와 살아가는 것 이 생각보다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사고의 전환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대학에서 배운 긍정의 힘으로 이곳에서도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는 켄 코퍼레이션과의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관광학부 내에 글로벌호텔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해 해외 취업에 특화된 인재를 연 40 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⑦



미국령 괌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졸업식' 모습



해외 호텔(괌 힐튼호텔) 인사담당자 방문 면접